DOI: https://doi.org/10.28977/jbtr.2012.4.30.25

한문성경『대표본』(代表本, 1854)의 번역 특징
-전도서를 중심으로-

이환진*

福來可喜, 禍至可慮
上帝使二者迭相倚伏
俾人不能逆料 (대표본 전도서 7:14)

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
孰能其極 (노자 왕필본 58장)

1.『대표본』 전도서의 타르굼적 특징

1854년에 나온 한문성경『대표본』(代表本)은 한 마디로 "한문 타르굼"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타르굼은 유대인들의 아람어 번역으로, 여러 성격 가운데에서도 자유로운 본문 읽기가 그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1]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덧붙이기"(addition)와 "달리 읽기"(substition)와 "다시 쓰기"(rewriting)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2] 이런 카테고리를 따라 읽어보면 바로 이러한 특징에 딱 들어맞는 번역이 바로 한문성경『대표본』이다.[3] 번역이란 문자적인 번역과 풀이가 들어간 번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무리 자유로운 번역이라 해도 문자적인 번역이 들어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대표본』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고전을 자유롭게 인용

*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1) Philip Alexander, "Jewish Aramaic Translations of Hebrew Scriptures", M. J. Mulder, ed., *Mikra* (Assen: Van Gorcum; Philadelphia: Fortress, 1988), 217-253.

2) Philip Alexander, "Targum, Targumim", Daniel N.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Shi-Z* (New York: Doubleday, 1992), 329.

3) 최근에 이와 비슷한 성격의 번역이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이 번역한 영어성경 Message이다. 이 성경의 대본으로 우리말로도 신약이 다 번역되어 나왔고 구약은 오경이 번역되어 나오기도 했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도서를 예로 들어보자.『대표본』전도서 7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 福來可喜, 禍至可慮
> 上帝使二者迭相倚伏
> 俾人不能逆料 (대표본 전도서 7:14)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복이 오면 기뻐할 수 있고 화가 미치면 걱정할 수 있다.
> 하느님이 이 둘을 서로 잇대어 기대고 번갈아 생기게 하신다.
> 사람은 이를 미리 헤아릴 수 없게 한다.

이 부분은『老子』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닮았다.

> 禍兮福之所倚
> 福兮禍之所伏
> 孰能其極 (노자 왕필본 58장)
>
> 화(禍)라는 것은 복(福)이 숨어 있는 것이고
> 복(福)이라는 것은 화(禍)가 기대어 있는 것이다.
> 누가 그 끝을 알 수 있으랴?

이미 눈치 챘을 줄 알지만『대표본』전도서가『노자』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4] 곧 "福"(복)이라는 말과 "禍"(화)라는 말 그리고 "迭相倚伏"(질상의복)의 "倚"(의)와 "伏"(복)이『노자』의 용어이다. 따라서 우리는『대표본』전도서를 읽으면서 동시에『노자』를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곧『대표본』을 읽으면서『노자』를 동시에 읽는 것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마지막 부분이다.

> 孰能其極 (노자 왕필본)
> 上帝使二者迭相倚伏 (대표본 전도서)

4) 여기서 인용한『노자』는 왕필본(王弼本)이다. 기원후 3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왕필본 말고도 더 이른 판본인 죽간본(기원전 3세기)과 백서본(기원전 1세기)이 더 있다. 이 세 판본의 비교 본문을 함께 싣고 논의한 책으로는 김상기,『억지없이 과장없이 도덕경 읽기』, 2009(미간행 서적)를 보라.

『노자』(왕필본)는 "누가 그 끝을 알 수 있으랴?"라고 하여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이와 달리『대표본』전도서는 "하느님께서 이 둘을 서로 기대고 숨어있게 하셨다"라고 읽는다.『노자』는 회의론에 빠져있지만『대표본』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그 결론은 다르지만 사용하는 용어는 같다. 이렇게『대표본』이 전도서 7장에서『노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곳에서 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대표본』이 히브리어 성경을 옮기는 과정에서 고전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또 다시 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대표본』의 번역 기법이다. 전도서가 고전을 인용하는 것은『노자』뿐만이 아니다.『논어』도 인용하고 또『맹자』도 인용한다.[5]

이렇게 고전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고전의 표현이나 운율을 그대로 따라 히브리어 본문을 읽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도서의 대표적인 표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이다. 이 표현은 전도서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표현이다. 곧 1:2와 12:8에 나오는 이 표현은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다.

> 空之又空, 虛之又虛 (대표본 전도서 1:2, 12:8)
>
> 비고 또 비어있다.
> 덧없고 또 덧없다.

이렇게 옮겨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앞서도 인용한『노자』(왕필본)의 제1장에 나온다.

> 此兩者同出而異名.
> 同謂之玄.
> 玄之又玄. 衆妙之門 (노자 왕필본 1장)
>
> 이 둘은 같은 곳에서 나왔으나 이름이 다르다.
> 그리하여 함께 신비라 부른다.
> 신비하고 또 신비한 것 이것이 모든 것이 들어가는 문이다.

이 표현 가운데 "玄之又玄"(현지우현)이 바로 우리가 관심 갖는 표현이다. "空之又空"(공지우공)이나 "虛之又虛"(허지우허)와 구조가 똑같기 때문이다. 그런데『대표본』은 두 번 반복되는 히브리어 표현 "하벨 하발림"(**הבל הבלים**)을

5) 이 글의 "2.「대표본」전도서의 번역 특징" 가운데 "2.1 고전 인용" 부분을 보라.

이렇게 달리 읽었다. 한 번은 "空"(공) 자를 반복하여 읽고 또 한 번은 "虛"(허) 자를 반복하여 읽는다. 두 용어 모두 "비어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용어는 "덧없다"는 뜻도 있다. 따라서『대표본』은 말놀이를 하면서 두 번 반복되는 히브리어 표현을 이렇게 달리 읽는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1:2에는 "하벨 하빌림"이 두 번 반복되지만 12:8에는 한 번만 나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본은 1:2와 12:8을 똑같이 읽었다. 문학적 구조상 이 두 구절이 전도서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얘기를 앞에서 언급하였는데, 아마도『대표본』전도서의 번역가들은 이 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일부러 똑같이 읽은 듯하다. 아니면 본문 비평의 결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아마도 12:8에서 "하벨 하발림"이 한 번 생략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대표본』전도서는 덧붙이기와 달리 읽기와 다시 쓰기 그리고 한문 고유의 운을 맞추어 본문을 읽는다. 덧붙이기란 12:8에서 한 번 더 읽은 것을 말하고, 달리 읽기는 "空"(공)과 "虛"(허)를 번갈아 가면서 옮긴 것을 말하며 다시 쓰기는 히브리어 본문을 완전히 재구성하여 읽은 것을 말한다. 물론 한문 고유의 운을 맞추어 읽었다는 것은『노자』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옮긴 것을 말한다.

이번에는 그 번역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대표본』시편 16편을 보면 "할주"(割註)가 있다.[6] 할주는 달리 읽기를 본문 사이에 작은 글자로 집어넣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 할주는『대표본』이 거의 활용하지 않는 편집 체계이다.[7] 그런데도 시편 16편에는 다음과 같은 할주가 나온다. 먼저 시편 16:4를 읽어보자.

> 人逆上帝, 羣奉偶像
> 惟我不獻血以爲祭兮, 不稱名以讚頌 (대표본 시편 16:4)
>
> 사람들이 하느님을 거역한다. 무리가 우상을 섬긴다.
> 오직 나는 헌혈을 제사로 삼지 않는다.
>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지 않는다.

---

6) 할주 또한 대표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지만 전도서에는 나오지 않아 번역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시편을 예로 들기로 한다.

7) 이와 달리 대표본보다 약간 뒤에 나온『브리지만-컬벗슨역』(1864)과 20세기 초에 나온『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시주교역, 1902)에는 "할주"(割註)가 무척 많이 등장한다. 초기 한글성경 가운데에는 성공회에서 펴낸『구약촬요』(1898)에서도 "할주"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최초의 구약 본문 번역인『구약공부』(1893)에서도 "할주"가 눈에 띄는데 아마도 초기 한글성경은 이런 한문성경의 편집체제를 받아들인 듯하다.

『대표본』은 이렇게 본문을 읽고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할주를 위의 본문 아래에 싣는다.

人逆一節惑曰
人背道甚速必遘多艱彼獻血以祭偶我不與之偕其名不挂諸齒頰兮

"사람들이 반역한다"는 이 구절은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이 신속하게 도(道)를 배반하니
많은 어려움을 반드시 당할 것이다.
그들은 피를 바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나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이름을 뺨과 이에 걸어두지 않는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은 많을 것이다.
다른 (신들에게) 재빨리 가니 말이다.
나는 피를 헌제(獻祭)로 바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내 입술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다.[8]

또는 이렇게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슬픔이 넘쳐나기를
다른 이와 그들은 혼인했으니.
나는 피의 헌주를 붓지 않으리라.
나는 그들의 이름을 내 입술에 올려놓지 않으리라.

이 읽기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읽기를 옮겨본 것이다. 라쉬(Rashi)가 그

8) 미국 유대인들의 영어 성경인 NJPS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영어성경인 Koren이 이와 비슷하게 읽는다.

"… those who espouse another [god]
may have many sorrows!
I will have no part of their bloody libations;
their names will not pass my lips." (NJPS)

"Their sorrows shall be multiplied that hasten after another god: their drink offerings of blood will I not offer, not take up their names upon my lips." (Koren)

대표적인 학자이다.[9] 이렇게 이 구절은 본문이 많이 파손된 부분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보통 앞 절과 함께 읽지만 충분한 설명이 지금까지는 없다.

그런데『대표본』은 번역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거스른다"[人逆上帝]는 말을 집어넣어 읽는다. 첨가(addition)이다. 그리고 "다른 것을 뒤따른다"는 말을 "무리가 우상을 섬긴다"[羣奉偶像]로 옮긴다. 그런데 할주에서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무척 신속하게 도(道)를 배반하니 많은 어려움을 반드시 당할 것이다"[人背道甚速必遘多艱]라고 대치 번역을 제시한다. 여기서 "무척 신속하게"[甚速]는 히브리어 "마헤르"(מהר)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것"(אחר)이라는 말과 함께 "사람들이 도(道)를 배반한다"[人背道]로 읽어 전혀 다른 읽기를 제시하고 있다. 곧 달리 읽기(substitution)라 말할 수 있다.

또한 할주 마지막의 "그 이름을 뺨과 이에 걸어놓지 않는다"[其名不挂諸齒頰兮]라는 표현 역시 첨가이다. 특히 "뺨과 이[齒]"라는 표현은 "입술"이라는 히브리어를 읽은 듯한데, 그렇다면 여기서 "뺨"은 첨가이다. 이렇게『대표본』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할주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대체 번역을 제시한다. 본문이 많이 파손되었기 때문이지만 이 시편의 번역가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여 이렇게 읽은 듯하다. 이렇게『대표본』은 첨삭(添削)을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또한 달리 읽기를 제시하기도 한다.

1960년대에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 박사는 성서번역 이론을 말하면서 "내용의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10] 그러다가 1980년에 들어서서 "기능의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11] 결국 둘 다 같은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문의 독자가 반응하는 것과 번역문의 독자가 반응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12] 또한 명사나 전치사 또는 형용사를 사건어로 읽어야 한다는 것도 이 이론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 이론에 입각하여 나온 영어 성경이 GNB와 CEV이다. 이 두 성경을 읽어보면 영어가 외국어인 독자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읽기용 성경이라는 사실이다.

---

9) Mayer I. Gruber, *Rashi's Commentary on Psalms*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7), 226.

10) Eugene A. Nida and Charles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69).

11) Jan de Waard and Eugene A.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1986).

12) Ibid., 184.

나이다 박사의 번역이론은 최근에 나온 유진 피터슨의 The Messag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찌 보면 GNB나 CEV보다도 더 기능의 동등성 이론에 충실한 성경이 피터슨의 The Message이다.[13] 그런데 이러한 이론이 나오기 이미 100년 전에 이 이론에 잘 맞게 번역해낸 성경이 바로『대표본』이다. 원문에 충실하기보다는 한문 문화권 독자들이 읽기에 편한 성경이기 때문이다.

2.『대표본』전도서의 번역 특징

여기서는 전도서에 나오는 모든 예를 다 뽑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부분만 골라 분류하여 싣는다. 필립 알렉산더(Philip Alexander)가 타르굼의 특징을 분류한 것처럼, "다시 쓰기"와 "달리 읽기"와 "덧붙이기"라는 큰 틀로 나누자면 다음과 같다.

* 다시 쓰기 (rewriting)
  (1) 고전 인용, (4) 짧게 함축하여 읽는다, (8) 생략,
  (9) 성차별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달리 읽기 (substitution)
  (2) 기능적 대응어 활용, (8) 사건어,
  (10) 문맥에 따라 같은 말을 다양한 뜻으로 해석한다.

* 덧붙이기 (addition)
  (3) 길게 풀어 옮긴다, (5) 중언법, (7) 첨가, (11) 실명사화

이 점을 더 세분하여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2.1. 고전(古典) 인용[14]

13) 이에 대한 반동으로 영어권에서 최근에 Common English Bible이 나왔다. 이 CEB는 정확성과 간결성 그리고 쉬운 말을 목표로 하여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이 특징이다.『대표본』에 대한 반동으로『브리지만-컬벗슨역』이 나온 것에 비견할 수 있을 듯하다.

14)『대표본』이 잠언(4:22)에서『中庸』(第八章)의 "拳拳服膺"(권권복응)을 그대로 따와 사용한 것과 같은 번역 기법이다. 이외에도『대표본』은 시편(23:5)에서『詩經』(大雅 生民之什 行葦)의 "肆筵設席"(사연설석)을 그대로 따와 읽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2:9 “나는 문지방을 넘지 않았다”(我不踰吾閑) -『論語』(子張 十一章)에 나오는 “大德不踰閑”(대덕불유한)의 “不踰閑”(불유한)을 따오고 “吾”를 그 속에 집어넣어 읽었다.

7:14 “복이 오면 기뻐할 수 있고 화가 미치면 걱정할 수 있다. 하느님이 이 둘을 서로 잇대어 기대고 번갈아 생기게 하신다. 사람은 이를 헤아릴 수 없다”(福來可喜, 禍至可慮, 上帝使二者迭相倚伏, 俾人不能逆料) -『老子』(왕필본 58장)에 나오는 “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 孰能其極”(화라는 것은 복이 숨어 있는 것이고 복이라는 것은 화가 기대어 있는 것이다. 누가 그 끝을 알 수 있으랴?)의 “화”와 “복” 그리고 “의”와 “복”을 그대로 가지고 문장을 재구성하여 읽은 것이다.

11:3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면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油然作雲, 則沛然下雨) -『孟子』(梁惠王上)에 나오는 “天油然作雲, 則沛然下雨, 則畝浡然興之矣”(천유연작운, 즉패연하우, 즉묘발연흥지의)의 앞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2.2. “기능적 대응어” 활용

1:1 “말”(**דברים***) - “대도”(大道)

1:2 “헤벨”(**הבל**) - “빔과 덧없음”(空之又空 虛之又虛), “헛일”(徒勞), “있지 않음”(無有)

1:9 “하늘 아래”(**תחת השמש**) - “세상 일”(天下之物)

1:15 “헤벨과 바람을 좇다”(**הכל הבל ורעות**) - “바람을 잡고 그림자를 붙잡다”(捕風捉影)

2:3 “내 마음이 지혜로 이끌다”(**לבי נהג בחכמה**) - “감히 도를 잃지 않았다”(不敢失度)

2:9 “지혜가 내 곁에 서있다”(**חכמה עמדה לי**) - “문지방을 넘지 않다, 법칙을 어기지 않다”(我不踰吾閑)

4:1 “그들을 억압하는 이들”(**עשקיהם**) - “천하를 휘두르는 이”(天下之秉鈞者)

4:9 “그들의 애씀(노력)”(**עמלם**) - “서로 도울 수 있다”(可相助[以有成])

4:9 “그들에게 좋은 보답이 있다”(**יש להם שכר טוב**) - “무언가 이룰 수 있다(可[相助以]有成)

4:13 “슬기롭다” (**וחכם**) - “(도리어) 밝은 지혜가 많다”([反]多明慧)

7:15 “나의 헤벨의 나날에”(**במי הבלי**) - “나는 속세에 살면서”(我處塵凡)[15]

9:1 “그들이 하는 일”(עבדיהם) - “(의인과 현인이) 하는 일”(所爲), “(그 사람들이) 당하는 일”(所値)

9:1 “사랑이나 미움이나”(גם אהבה גם שנאה) - “돌봄의 여부”(上帝之眷顧與否)

2.3. 길게 풀어 옮긴다.

4:1 “아,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이다”(והנה דמעת העשוקים) - “백성의 고통이 무척 심하니 눈물을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으나”(民罹其酷, 靡不墮淚)

4:6 “두 움큼(양 손바닥)의 애씀(노력)”(מלא חפנים עמל*) - “많이 벌고 힘들게 일하여 병들다”(多財而勞瘁)

4:13 “다스리다”(מלך*) - “나라를 다스리는 자”(治國家者)

4:13 “가난하다”(רש) - “가난한 백성이 된 자”(作窮民者)

9:1 “사랑도 미움도 사람은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모른다”(ע האדם הכל לפניהם) - (גם־האהבה גם־השנאה אין יוד) - “사람이 당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러나 하느님이 돌보시는지 여부를 또한 헤아리기 어렵다”(惟觀其人之所値, 而上帝之眷顧與否, 仍難逆料)

9:9 “사랑하다”(אהב*) - “돌보고 사랑하다”(眷愛)

2.4. 짧게 함축하여 옮긴다.

6:2 “그는 그 스스로 바라는 것치고 그의 욕망에 부족한 것이 없다”
(ואיננו חסר לנפשו מכל אשר־יתאוה) - “없는 것이 없다”(無所不有)

2.5. 중언법(重言法, hendiadys)

4:3 “모든 애씀과 능숙한 모든 기획”(את כל העמל ואת כל כישרון המעשה) - “힘써서 얻은 공”(勞而得功)

6:2 “부와 재산”(עשר ונכסים) - “재물”(貨財)

---

15) “내가 숨 쉬고 있는 나날” 또는 “내 짧은 나날”(NJPS) 또는 “내 덧없는 나날”로도 옮길 수 있는 이 표현은 인생을 시간에 비유한 표현이다. 그런데『대표본』은 이 시간을 공간으로 이해하여 “속세”나 “진토” 또는 “흙먼지”로 옮길 수 있는 “塵凡”으로, 곧 공간으로 인생을 생각하여 옮겼다.

11:10 “젊음과 한창 때(또는 늙음)”(הילדות והשחרות) - “모든 어린 시절”(蓋幼稚之時)

2.6. 생략

(1) 문장을 생략한다.

1:13 “괴로운 일, 비참한 일”(인얀 라, ענין רע) - “그 마음을 다 쓰게 하다, 기울이게 하다”(使竭其心思)라는 표현 속에 집어넣고 뭉뚱그려 읽었다.

4:1 “그들에게는 위로하는 이가 없다”(ואין להם מנחם) - 이 표현이 이 구절에 두 번 나오는데 중복오사(重複誤寫, dittography)로 보아 빼버린 듯하다. JB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16]

(2) 어떤 구(句)나 표현을 생략하기도 한다. (밑줄친 부분 생략)

4:8 “그에게는 형(또는 아우)도 아들도 없다”(גם בן ואח אין לו) - “형제자녀도 없다”(無兄弟子女)

4:10 “아,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כי אם יפלו האחד…) - “한 사람이 넘어지면 …”(若一人傾跌)

4:11 “가난한 그러나 슬기로운 젊은이”(ילד מסכן וחכם)

4:15, 6:1 “나는 보았다”(ראיתי)

11:10 “걱정이 네 마음에서 멀리하게 하라, 악이 네 몸에서 지나가게 하라”(והסר כעס מלבך והעבר רעה מבשרך) - “반드시 욕망을 버리고 그릇됨을 끊으라”(必去欲絶邪)

(3) 인칭 대명사 어미를 생략한다.

① 2인칭(남성 단수)

9:7 “너의 빵” (לכמך) - “떡”(餠)

“너의 술” (יינך) - “술”(酒)

9:10 “너의 손” (ידך) - “당연히, 마땅히”(當)

② 2인칭(여성 단수)

16) 민영진, 『國譯聖書硏究』 (서울: 성광문화사, 1984), 295.

10:15 “너의 왕”(מלכך) - “왕이 되다”(爲王)

③ 3인칭(남성 단수)
4:10 “그의 동료”(חברו) - “다른 사람”(一人)

④ 3인칭(남성 복수)
4:1 “그들을 억압하는 이들”(עשקיכם) - “백성을 모질게 대하다”(虐遇民人)
4:1 “그들에게(להם) (위로하는 이가 없다)” - “위로하는 이 하나 없다”(慰藉無人)

2.7. 첨가 – 표현을 집어넣어 읽기도 한다.

4:1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我竊思)
4:3 “또 생각해보니”(又思)
4:3 “태어나 다시 죽는 자”(生而復死者)
4:4 “세상 사람들”(世人)
4:7 “벗과 사귀는 것이 더 낫다”(不如友朋交接)
4:10 “(한 사람이 넘어지면) 곧 (다른 사람이 붙들어준다)”(若一人傾跌, 則一人爲之扶持)
4:16 “(또 수많은 사람이 있어) 명을 받다”(更有兆民稟令)

2.8. 사건어

(1) 명사를 사건어로 읽는다.

4:6 “한 움큼”(כף) - “조금 얻다”(寡得)
“두 움큼”(חפנים) - “많이 벌다”(多財)
4:7 “고통스러운 일”(עין רע) - “후환을 또 남긴다”(更貽後患)
9:6 “몫”(חלק) - “(그와) 더불어 …함께 하다”(與(彼無)與)
9:9 “몫”(חלק) - “그 얻은 바를 편히 즐기다”(安享其所得)
9:7 “네 일”(מעשיך) - “너는 이 법을 실천한다”(爾爲是則)
10:15 “네 왕”(말케크, מלכך) - “왕이 되다”(爲王)
10:15 “어린 아이”(나아르, נער) - “그릇이 작은 자”(器小子)

(2) 전치사를 사건어로 읽는다.

4:2 “그들의 억압자들의 손으로부터 힘이”(מיד עשקיהם כח)[17]
4:11 “하나에게”(לאחד) - “(홀로) 잠들다”(獨寐)
5:13 “고통스러운 일에”(בענין רע) - “재앙을 당하다”(旣遭患難)
6:1 “사람 위에”(על האדם) - “사람에게 길고 크게 탄식할 만한 일이 하나 있다”(人可爲長太息者一)
9:1 “하느님의 손 안에”(ביד האלהים) - “모두 하느님의 다스림으로 되돌아간다”(咸歸上帝治理)
9:1 “그들 앞에”(לפניהם) - “그 사람이 당하는(만나는) 일”(其人之所値)

(3) 형용사를 사건어로 읽는다.

9:2 “똑같은 운명”(מקרה אחד) - “애초부터 다르지 않다”(初無或異)
9:3 “이것은 악하다”(זה רע) - “일 중에는 깊이 탄식할 만한 것이 있다”(事有深可嘆息者)

2.9. 성차별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8 “(그에게는) 아들도 형제도 (없다)”([אין לו] גם בן ואח) - “형제 자녀도 없이”(無兄弟子女)
9:9 “네가 사랑하는 여자”(אשא אשר אהבת) - “부부지간에는 당연히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夫婦之間, 必當眷愛)

2.10. 문맥에 따라 같은 말을 다양한 뜻으로 해석한다.

(1) “아칼”(*אכל)
6:2 “즐기다”(逸), “누리다”(享)

(2) “하야”(*היה)
1:9, 3:15 “있다”(有), “이루다”(成) - 有必復有, 成必再成 (1:9), 有而復有,

17) “(그가) 백성을 학대하여”(虐遇民人). 이 경우는 “손으로부터 힘이”라는 표현을 “학대하다”는 말로 뭉뚱그려 읽은 것으로 보인다.

成而再成 (3:15)
2:18 “일어나다”(起) - 必遺於後起之人
4:3 “태어나다”(生) - 生而復死者於斯世者

(3) “나팔”(*נפל)
4:10 “(기울어) 넘어지다”(若一人傾跌), “넘어지다”(獨居而蹶)

(4) “헤킴”(*הקים - קום의 히필形)
4:10 “붙들어 주다”(則一人爲之扶持)
4:10 “손 내밀다, 손으로 잡아주다”(援手無人).

(5) “이”(*אי־)
4:10 “고통스런 재앙이 아니랴”(豈不難哉)
10:16 “나라가 반드시 위태로우리라”(而邦必危矣)

(6) “호크마”(חכמה)
2:3 “정도”(不敢失度)
2:9 “문지방, 한계, 규칙”(不踰吾閑)
4:13 “다명혜”(多明慧)
8:16 “식견”(識見)
9:16 “명철”(明哲)

(7) “미스켄”(מסכן)
9:15 “貧人”(빈인)
9:16 “貧者”(빈자)

(8) “싸메악흐”(*שמח)
3:13 (칼形) “편히 즐기다”(安享)
3:22 (칼形) “편히 기뻐하며 즐기다”(安樂以享[之])
4:16 (칼形) “칭송하다”(頌)
10:19 (피엘形) “기쁨으로 삼다”(爲悅)

(9) “라”(רע) 또는 “라아”(רעה)
2:17 “근심과 걱정”(殷憂慼慼)

6:1 “한탄”(息)
6:2 “탄식”(嘆)

2.11. 실명사화 – 인칭대명사 어미

2인칭(남성 단수)
9:8 “네 옷가지”(בגדיך) - “몸의 옷”(身之衣)

3. 맺는 말 - 성서번역에 대한『대표본』의 공헌

무엇보다도 먼저 중국 고전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또 “다시 쓰기”를 한다는 점이다.『대표본』전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는『논어』를 인용한 부분(2:9)과『맹자』를 인용한 부분(11:3), 그리고『노자』를 인용하면서도 자유롭게 다시 쓰기를 한 부분(7:14)이다. 또한『대표본』전도서의 대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空之又空, 虛之又虛”(공지우공 허지우허, 1:2, 12:8) 또한 한문 문장의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읽은 것을 알 수 있다.『노자』(왕필본 1장)에는 “玄之又玄”(현지우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표현과 운을 따라『대표본』전도서가 히브리어 본문을 읽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때로 원문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것을 바로『대표본』의 번역 특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시 쓰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을 못마땅하게 여겨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자고 하여 나온 한문성경이 바로『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이다.[18] 그런데 이 한문성경은 본문 결정(textual decision)에 있어서 영어성경 KJV를 따른 것을 알 수 있다.[19] 이후에 나온 쉐레쉐브스키의 두 성경인『북경관화역 구약』(1875)과『시주교역』(1902)은 라쉬(Rashi)를 위시한 유대인들의 해석을 많이 따른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 성경은 그 표현과 용어에서『대표본』을 많이 따르고 있다.『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은 일어『문어역』(1888)과 한글『구역』(1910)

18) 이러한 과정은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보아도 타당할 것이다.『대표본』(1854)은 중국 문화에 성서를 갖다 맞추려는 선교 초기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브리지만-컬벗슨역』(1864)과 그 이후에 나온 한문성경은 중국 문화나 중국 문학보다는 원문에 충실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당연한 결과이다. 현대 영어 성경 가운데에서는 유진 피터슨의 Message(2002)가『대표본』(1854)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 이환진, “한문성경『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의 번역 특징”,「신학과 세계」72 (2012 봄), 1-39를 참조하라.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북경관화역』은 중문『화합본』(1919)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대표본』은 한문성경과 중문성경뿐만 아니라 일어 성서와 한글 성경의 어머니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한중일 성경의 모체가 바로『대표본』이다.[20]

그리고 현대 성서번역학의 초석을 놓은 유진 나이다의 번역이론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기능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 이론에 충실한 번역기법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대표본』이다. 원문보다는 한문 독자들에게 친숙하도록 아름다운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인 까닭이다. 특히 "운"(韻)을 맞추어 번역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원문을 과감하게 다시 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점은 대표본이 성차별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포용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영어권에서는 1990년에 나온 NRSV가, 우리말 성경은 2001년에 나온『새번역』이 이런 입장에서 내놓은 성경인데, 이와 비교한다면『대표본』은 상당히 시대를 앞선 성경이었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어>(Keywords)

대표본, 한문성경, 한문 타르굼, 대표본의 번역 특징, 중국 고전 인용, 운 맞추어 읽기, 다시 쓰기, 달리 읽기, 덧붙이기.

Classical Chinese Bible, Delegates' Version in Wenli, Classical Chinese Targum, Characteristics of the Delegates' Version, Quoting Chinese Classics, Rhyming, Rewrting, Substitution, Addition.

(투고 일자: 2012. 2. 3, 심사 일자: 2012. 2. 24, 게재 확정 일자: 2012. 3. 17.)

20) 이환진,『구약성서 속에서 노닐다』, 56의 도표 참조.

<참고문헌>(References)

(1) 성경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舊約撮要』, 大英公高會, 1898.

『새번역 성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文理 舊新約聖書』(대표본), Wenli Bible, Delegates' Version, Shanghai: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33 [Ed. No. 2908].

Biblia Sacra iuxta Vulgatam Versionem, Fischer, Bonifatio, Iohanne Gribomont, H. F. D. Sparks, W. Thiele. ed., Dritte, verbesserte Auflag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3.

『舊新約全書』, 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Classical Bible), 上海: 大美國聖經會(American Bible Society), 1864.

『舊新約聖經. 淺文理. 上帝』(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 시주교역), 上海: 美國聖經會(Easy Wenli, Bishop Schereschewsky's Version, Term Shangti. Shanghai: American Bible Society), 1902.

『시편 풀님』, 이환진, 서울: 한모임, 2005.

『시편과 아가』, 최민순, 서울: 바오로딸, 1993.

The Septuagint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With an English Translation and with Various Readings and Critical Notes, London: Samuel Bagster and Sons Limited.

ktb' qdyš'. ktb' ddytq' 'tyqtk' u ḥdt', *Syrian Patriarchate of Antioch and All the East*, Damascus, Syria. Syriac Bible 63DC. United Bible Societies 1979.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American Standard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01.

La Bible, Ancien et Nouveau Testament, Traduit de l'hébreu et du grec en français courant, Nouvelle édition révisée 1977. Villiers-le-bel: Société biblique française, 1977.

Holy Bible, Common English Bible, Nashville: Common English Bible, 2011.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Wheaton, Illinois: Crossway, 2002.

Good News Bible, Good News Translation, Catholic Edit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92.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Nashville: Thomas Nelson, 1977; org. ed. 1611.

The Holy Scriptures, The English text revised and edited by Harold Fisch,

Jerusalem: Koren Publishers, 1992.

Das Alte Testament hebräisch-deutsch, Biblia Hebraica mit deutscher Übersetzung, (Deutsch Übersetzung-Revidierte Fassung der Übersetzung Martin Luthers (1964), mit Genehmigung des Rates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Stuttgart: Würtembergische Bibelanstalt, 1974.

The Message, The Bible in Contemporary Language, Eugene H. Peterson, Colorado Springs, Colorado: Navpress, 2002.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lorado Springs, CO: International Bible Society, 1984.

JPS Hebrew English TANAKH, *The Traditional Hebrew Text and the New NPS Translation-Second Edition*,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9.

Holy Bible, New Living Translation, Carol Stream, Illinois, 2007.

The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ashville, TN: Cokesbury, 1990.

(2) 연구 문헌

김상기,『억지 없이 과장 없이 도덕경 읽기』, 2009 (미간행 서적)

『구약공부』, 1893.

閔永珍,『國譯聖書硏究』, 서울: 성광문화사, 1984.

이환진, "한문성경『브리지만-컬벗슨역』(1864)의 번역 특징",「신학과 세계」72 (2012 봄), 1-39.

이환진,『구약성서 속에서 노닐다』,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1.

Alexander, Philip, "Targum, Targumim", Daniel N.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Shi-Z*, New York: Doubleday, 1992, 320-331.

Alexander, Philip, "Jewish Aramaic Translations of Hebrew Scriptures", M. J. Mulder, ed., *Mikra*, Assen and Philadelphia, 1988, 217-254.

Alter, Robert, *The Book of Psalms,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London: W. W. Norton and Company, 2007.

Clifford, Richard J., *Psalms 1-72,* AOTC, Nashville: Abingdon, 2002.

Dahood, Mitchell, *Psalms I: 1-5.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16.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65.

Eber, Irene, *The Jewish Bishop and the Chinese Bible, S. I. J. Schereschewsky (1831-1906),* Leiden: Brill, 1999.

Gerstenberger, Erhard S., *Psalms, Part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FOTL XIV*, Grand Rapids: Eerdmans, 1988.

Gruber, Mayer I., *Rashi's Commentary on Psalms*,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7.

Kraus, Hans-Joachim, *Psalms 1-59, A Continental Commentary,* Hilton C. Oswald,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3.

Legge, James, *Confucius, Confucian Analects, The Great Learning and The Doctrine of the Mean,* Chinese Text; Translation with Exegetical Notes and Dictionary of All Characters. New York: Dover, 1971; org. ed. 1893.

Legge, James, trans., *The Texts of Taoism. Part I: The Tao Te Ching of Lao Tzŭ. The Writings of Chuang Tzŭ,*(Books I-XVII), New York: Dover, 1962; org. ed. 1891.

Nida, Eugene A. and Charles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Helps for Translators 8. Leiden: Brill, 1969.

de Waard, Jan and Eugene A.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6.

Wu, John C. H., trans., *Tao Te Ching,* Boston; London: Shambala, 2006.

<Abstract>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legates' Version of the Chinese Bible (1854): Focusing on the Book of Qoheleth

Prof. Hwan Jin Yi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Chinese Delegates' Version, which was released in China in 1854, can be called "Classical Chinese Targum." Most of all, this Wenli Bible freely quotes and rewrites from Chinese Classics, when translating the Hebrew Bible. Ecclesiastes 7:14 can be taken as one of the preeminent example of it: 福來可喜, 禍至可廬, 上帝使二者迭相倚伏, 俾人不能逆料. The sentence can be read, "We can be joyous, when good fortune comes. We can be worried about, when bad fortune arrives." Interestingly, the wordings and dicta of Ecclesiastes of the Delegates' Version are so similar to that of Tao Te Ching. The Wang Pi's Edition(王弼本) of Tao Te Ching(道德經) reads "禍兮福所倚, 福兮禍所伏, 孰能其極"(ch. 58), which means "Bad fortune is what good fortune leans on. Good fortune is what bad fortune hides in. Who knows the ultimate end of this process?" (John C. H. Wu) Both Delegates' Version and Tao Te Ching share with each other the important terms like "福"(fú, 복), "禍"(huò, 화), "倚"(yǐ, 의) and "伏"(fú, 복). As such, when reading the Delegates' Version, we might feel that we read Chinese Classics together due to their similar wordings and expressions.

Some of characteristics of the Aramaic Targum can be termed "addition," "substitution," and "rewriting," according to Philip Alexander.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p. 329). The Chinese Delegates' Version shows the similar features to Aramaic Targum. For example, the catch-phrase of the book of Qoheleth in the Wenli Bible can be "空之又空, 虛之又虛," which occurs in 1:2 and 12:8, because it forms an inclusio within the whole book of Qoheleth. It can be literally read, "Empty and again empty. Vain and again vain," or the like. This Chinese expression is quite close to that of Tao Te Ching in terms of its literary formation, when we read chapter one: 玄之又玄. ("Mystery and again mystery"). We can get to know that "空之又空, 虛之又虛" shows us addition, substitution and rewriting, when we read it in Hebrew originals.

The Masoretic text of Qoheleth reads in 1:2, “hăvēl hăvālîm ’āmar qohelet hăvēl hăvālîm hakol hāvel,” which literally means “The vanity of vanities, says Qoheleth, the vanity of vanities. Everything is vain.” This phrase is somewhat different from 12:8. There the second “the vanity of vanities” is omitted, but the Delegates’ version has the same expression in both verses. It seems likely that this kind of reading in the Wenli Bible presumably refers to rewriting in order to emphasize on inclusio as its literary structure within the whole book of Qoheleth. At the same times the wordings in both 1:2 and 12:8 follow the Classical Chinese expressions and rhymes as well.

Over all, the Chinese Delegates’ Version seems to faithfully follow the functional equivalence by Eugene A. Nida, even though it was issued 100 years before the coming out of his theory. From the perspectives of communication theory, it definitely successful in delivering the biblical message to the East Asian people of the literates in that far more than 70 reprints had been showed up in China up until the 1930’s.